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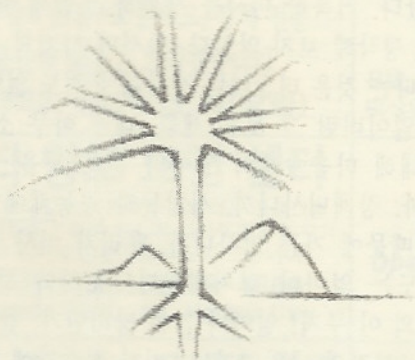


백삼위 한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부활 제5주일 (성모성월)
제27권 23호 (다해) 2007-5-6

[묵상]



뿌리가 가지에게

단단한 바위를 뚫고 길을 내어

하늘이 내리시는 빗물을 받아

푸른 피로 전하는 말

사랑하라, 바람에 흔들리는 가지들아

모든 꽃과 잎과 열매들이 사랑이다.

◆ 한광구 요셉 · 시인 / 최창원 니콜라오 · 화가

미사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310)962-8414
연령회 (장례시 연락처) : (213)458-0396

수요일	평일 미사	오후 7:30
목요일	평일 미사	오후 7:30
금요일	평일 미사	오전 8:30
토요일	성모신심 미사(첫토요일) 특전미사 (청년미사)	오전 8:30 오후 7:00
주일	아침 미사 주일학교미사(영어) 낮 미사	오전 7:30 오전 9:30 오전 11:00

주간 행사표

화요일	백삼위 신앙학교 (4단계 7월2일까지)	오후 7:30
수요일	면담의 날 (신부님, 수녀님) 거룩한 독서(Lectio Divina) 예비자 교리반	오후 2:00 오전 10:30 오후 8:00
목요일	병자영성체 (1째주) 성 시간 (첫목요일) 성령 기도회 예비자 교리반	오전 9:30 저녁 미사후 오후 8:00 오후 8:00
금요일	거룩한 독서(Lectio Divina) M. E. Sharing(3째주) 울뜨레아 (4째주) 거룩한 독서(Lectio Divina)	오전 9:30 오후 7:00 오후 8:00 오후 8:00
토요일	유아세례 (4번째 토요일) 복사단 모임 (첫토요일) 배론 청년모임	오후 6:00 오후 5:00 오후 5:00
주일	병자 영성체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 빈첸시오회 ● 요셉회/안나회/양업회/성모회/자모회 대건부부회/원서부부회 3째주 - 행사의 날 4째주 - 사목회 가정의 날	오전 중 오전 9:00 오후 1:00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1:00

※ 고해성사: 평일미사, 토요특전미사 15분 전, 주일미사 20분 전
※ 혼배성사: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병자영성체: 사무실로 신청

주임신부: 박상대 마르코 (310)326-4350 Ext.103/106
전교수녀: 구마리아네 (310)326-4350 Ext.102
평행회장: 유철희 바오로 (310)320-3697
사무실: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토 요 특전미사	(생) 민영준 마르코, 조지가보라, 유은상 안젤로, 김기현 성낙호 요셉 & 은혜 실비아, 안나회 어머니들을 위하여 최석원 안드레아 & 원희 엘리사벳, 김지원 임마쿨라따 최기남 야고보 & 옥희 데레사, 빈봉식 야고보
주 일 낮 미사	(연) 차문언 베드로, 박재희, 김창배 파스칼, 김형진 양갑순 마리아, 정운 요셉, 김인영 베드로, 이현호 요한 최복덕 마리아, 이영자 마리아, 테니스웨버 (생) 정기는 비오, 김종렬 베드로, 배재일 미카엘 가정 이종민 요셉, 박태라사, 이석제 베드로 가정, 유안나 & 박요셉 이유진 대건안드레아, 김셋별 요셉피나 & 한기선 요셉, 이단지 손석조 마리아, 안나/요셉회 온천 관광 봉사자들을 위하여 남가주 M.E. 제58차 봉사부부와 수강부부들을 위하여 이명렬 라파엘 & 크리스티나, 임종택 베르나르도 가정 이종원 베드로와 아녜스 가정, 박상대 마르코 신부님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사도행전 14,21ㄴ-27
화 답 송	◎내 하느님 임금님 기리오리다. 영원토록 당신 이름 기리오리다. <전례성가 73 부활 제5주일 C해> ◎주님은 자애롭고 불쌍히 여기시며 역정에 더디시고 사랑이 지극하오이다. 주님은 온갖 것을 선으로 대하시고 일체의 조물들을 어여뵈 여기시나이다.◎ ◎일체 당신의 조물들이 주여 당신을 찬미하고 성도들이 당신께 찬양드리게 하옵소서. 당신 나라 영광을 들어 말하며 당신의 능하심을 일컬으게 하소서.◎ ◎당신의 장하신 일 사람마다 아옵고 당신 나라 찬란한 영광을 알게 하소서. 주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 당신의 통치는 무궁하리이다.◎
제 2독서	요한 묵시록 21,1-5ㄴ
복음환호송	◎알렐루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복 음	요한 13,31-33,34-35
영성체송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나는 참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내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알렐루야.

오늘의 성가

	청년미사	낮 미사
미사곡	51~58	33~42
입당	167	194
봉헌	270	264, 177
성체	352	287, 289
파견	171	167

✧ 기록한 미사에 대한 카탈리나의 증언(4) ✧

다시 한번 나는 하느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내게 주시는 하느님께 감사했다. 그리고 용서를 청했다. 내 마음이 그 많은 세월 동안 그렇게도 완고했음을, 그리고 내 아이들에게 주일에 교회에 가는 이유가 하느님으로 우리를 채워야 할 필요성과 하느님께 대한 사랑 때문이 아니라 교회가 명령하고 요구하기 때문이라고 가르친 것을…….

나는 거의 대부분, 의무와 공동체의 강요 때문에 그렇게도 많은 미사에 참례했었고, 그러면서도 구원을 받으리라고 그렇게 믿어 왔다. 거룩한 미사를 생활하고 함께 체험한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해 보지 않았다. 독서나 사제의 강론에 주의 기울인다는 것은 더군다나 생각해 본적도 없었다.

그러면서 잃어버린 그 모든 세월, 내게 아무 소용없어진 그 세월에 대해 마음속에서 얼마나 큰 고통을 느꼈는지! 혼배미사니까, 장례미사니까, 사람들과 공동체에게 보여야 한다는 의무 때문에 가는 미사니까, 우리가 미사 중에 보이는 그런 태도는 얼마나 걸치레인가! 교회와 성체성사에 대한 우리들의 이 무지! 얼마나 많은 낭비인가, 얼마나 많은 정력의 낭비, 시간의 낭비인가! 우리가 한순간에 사라져 버릴 이 세상 속에 ‘마지막 보루’를 세우려 한다면, 우리 생명을 단 일 분이라도 연장시킬 수 있는 그 어떤 방법도 없이 삶의 종점에 남겨질 텐데! 그러나 우리는 지상에 하늘나라를 가져 오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줄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도대체 전혀 알지 못한다! 우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그러고도 우리는 우리가 똑똑한 줄 안다!

잠시 후 예물준비가 시작되었다. 지극히 거룩하신 동정녀께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도하여라.” 나는 따라했다. “주님, 저는 당신께 저의 전부를 봉헌합니다. 제가 가진 모든 것,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당신 손안에 드립니다. 오 주님, 작고 보잘 것없는 저를 써 주십시오. 당신 아드님의 공로를 통해 저를 바꿔 주소서. 오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 제 가족과 제 은인과 사도직의 모든 회원과 저희를 공박하는 모든 사람과 제 보잘 것없는 기도에 맡겨진 모든 사람을 위해 당신께 청합니다. 제 마음을 그들이 가는 길바닥에 놓는 법을 제게 가르치소서. 그리하여 그들의 삶의 여정이 그렇게 힘들지 않고 그들이 온유한 사랑을 느낄 수 있게 하소서. 그렇게 성인들이 기도하였다. 나는 너희도 그렇게 기도하기를 바란다.”

우리가 우리 마음을 바닥에 펼쳐 놓아서 그들이 거친 길을 느끼지 않게 하고, 그들의 발걸음마다 고통을 가볍게 하고 털어 주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기도 방법이다. 몇 년 후에, 내가 아주 공경하는 한 성인, 바로 호세 에스κρι바 데 발라구에 성인의 기도책을 읽다가 지극히 거룩하신 동정녀께서 내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와 비슷한 기도를 발견했다. 이 성인은, 특별한 보호 아래 나를 맡겼던 그 분은, 이 기도로써 하느님의 어머니께 큰 기쁨을 드렸을 것이다. ◆카탈리나 리바스 / 다음 주에 계속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계명’

1980년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고(故) 마더 테레사 수녀를 영국의 방송기자가 회견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기자는 테레사 수녀께 물었습니다. “당신은 평생을 죽어가는 사람들 곁에서 살아왔는데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테레사 수녀는 주름진 얼굴을 들고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자신이 버림받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는 일입니다. 진심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보살피 주는 이웃이 있다는 사실을 다만 살아 있는 몇 시간만이라도 느끼게 해 주는 것, 이것이 가장 필요한 일이지요.”

오늘 복음의 주제는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요한 13,34). 사랑이란 말은 우리가 가장 좋아하고, 많이 노래하고 가장 많이 바라고 꿈꾸는 낱말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생명이 있을 수 없고 삶이 있을 수 없습니다.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견디어 낼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은 아마도 내가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이 아닐까요?

우리 눈에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람도 하느님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참사랑의 의미를 보다 깊이 있게 실천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몸소 우리에게 보여 주셨던 조건 없는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 보잘것없는 이 하나라도 소홀히 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을 본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등을 돌리고 포기해도 하느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 이 사랑의 원리를 깊이 알아들어야 하겠습니다. 하느님 나라의 모든 영광을 포기하고 스스로 인간이 되시어 사랑의 참모습을 보였던 예수님께서서는 오늘 복음에서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겠다(요한 13,34)”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너희란 바로 사도들을 통해 이어진 교회 공동체 전체를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교회는 언제 어디서든지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고 증거해야 합니다.

사도들의 정신을 계승한 교회가 사랑의 원리 안에서 살아가고자 할 때 비로소 세상을 비추는 등불이 될 것이며 부활의 신비를 가장 힘 있게 증거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가정은 작은 교회이기도 합니다. 내 가정이 비록 가난하고 초라할지라도 그 곳이 사랑의 계명이 시작되는 곳이며 은총의 장소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내가 다니는 직장이 비록 고달프고 힘든 곳일지라도 그 곳이 바로 하느님 사랑의 원리가 새롭게 적용되는 은혜로운 장소임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 김지영 사무엘 신부 · 미아3동성당 주임



이번 주 전례 봉사자

다음 주 전례 봉사자

이번 주	토요 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이번 주	토요 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강정현 시몬	이호미 엘리사벳	엄영숙 마리아	해설자	최지영 크리스티나	이진향 아네스	최숙 클라라
제1독서자	최태훈 아오스딩	김교복 레오	전베령 베드로	제1독서자	박선규 라파엘	모은기 다두	이민상 요한
제2독서자	박지혜 수산나	황지영 안젤라	유현자 안나	제2독서자	김정은 세실리아	서용숙 에스텔	김정심 크리스티나
제물봉헌자			P. V. 2 반	제물봉헌자			토 서 1. 4 반

-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 미사시간에 늦지 말고, 되도록 일찍 옵시다.
- ◆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자선 2차 헌금 (매월 첫째 주일)
※ 2차헌금은 헌금봉투 오른쪽에 넣어 주일헌금과 함께 봉헌합니다.
- ◆ 가정의 성화와 레지오 재창단을 위한 묵주기도는 계속 봉헌합니다. 봉헌하신 묵주기도는 게시판에 기록합니다.
☞ 지난 주간 합계: 2,710단 ☞ 총 합계: 122,879단

◆ 백삼위 신앙학교 제4단계 개강

- 매주 화요일 오후 7시30분 (7월2일까지), 성전

◆ 제58차 M.E. 첫주말 참가자 환영식

- 오늘 오후 6시, 강당
- 참가부부 : 성낙호 요셉 & 은혜 실비아
이석호 라파엘 & 종미 카타리나
이경천 & 김기숙 엘리사벳

◆ 주일학교 전진반 '홈리스분들께 사랑의 샌드위치 나누기'

- 샌드위치 분배: 오늘주일 9시30분미사후, Down town
- 주관: 주일학교 전진반/ 대건회
- 관심과 정성을 쏟아주신 김원모 웬델리노님과 빈첸시오씨에 감사드립니다.

◆ 백삼위 한국학교 기금마련 어머니날/감사카드 판매

- 오늘주일 낮미사 후
- 가격: 1장 당 \$2

◆ 떼제노래와 함께하는 젊은이 기도모임

- 5월 12일(토), 20:30분 [매달 둘째 주 토요일]
- 성체조배실

- ◆ 고등부 신앙대회 참가 비용 기금마련 본당신부님배 골프대회
● 5월12일(토), Chester Washington
● Tee Time: Senior/Lady 오전10시
Men 오전 11시

- ◆ 주일학교 초.중.공등부 세례 및 첫영성체 대상자 부모님 모임
● 5월 13일(주일), 11시 미사 후, 성전

◆ 자모회 모임

- 5월13일(주일), 오후 1시, 성당
- 특강: 인터넷과 청소년 문화
- 강사: 김화경 스텔라

◆ 백삼위 한마당 체육대회

- 5월20일(주일), 낮미사 후
- 낮미사 시간 오전 10시30분으로 임시 변경합니다.

◆ 친교자리(주일 점심 나누기) 봉사 담당 소공동체

- 5월 6일: 소공동체 (김밥 \$3.50, 떡 \$4)
- 5월13일: 토렌스 북 1반 (김밥 \$3)

❀ 환영합니다. ❀

◆ 지난 주에 저희 본당에 처음 오신 분을 환영합니다.

- 남송미 (에비자)
자녀: 송유미, 송의재
- 이희진 히야친타 (토렌스 남 4반)
- 장대성 요한/하진희 율리아나 (토렌스 동 4반)
자녀: 한나 아네스

❖ 혼인공시 ❖

◆ 혼배 예정자: 김한진 루카 / 김윤미 베로니카

- 일시: 7월7일(토), 오후 4시30분
- 신랑측 부모: 김시진/김상숙
- 신부측 부모: 김재용 다두/김혜자 데레사

※위의 사람이 혼인하는 데 장애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무실로 연락해 주십시오.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강순복 김관기 김광자 김대우 김마틴 김상익 김용상 김원모 김윤진 김중문 김철민 박동수 박종렬 방세훈 서성용 송일권 신경훈 엄영희 오세원 오일순 원건희 유근우 유선식 유영균 이근태 이기성 이병우 이병호 이은록 장숙환 장영진 장정진 정순석 차인수 최상만 최순금 최원석 최재은 한금순 한창주 한혁수 황인중	성전헌금	강순복 김관기 김광자 김대우 김마틴 김용상 김원모 김윤진 김중문 김철민 박동수 박종렬 방세훈 서성용 송일권 신경훈 오세원 오일순 원건희 유근우 유선식 유영균 윤희동 이근태 이기성 이병우 이병호 이은록 장숙환 장영진 장정진 차인수 최상만 최원석 최재은 한금순 한창주 한혁수 황인중
합계 : \$5,160		합계 : \$3,990	
미사헌금 \$ 3,022.30		감사헌금 최순금	

◆ The Rosary Bowl- 다민족 묵주기도 대회

The Family that Prays Together, Stays Together: 함께 기도하는 가정에 화목
A World at Prayer is a World at Peace: 기도하는 곳에 평화

● 5월19일(토) 오후5시~9시

오후 6시: 찬양, 묵주기도 체험나눔

7시30분: 입장식, 성체 거양 행렬, 묵주기도

마호니 추기경 강론, 성체강복

● Rose Bowl, Rose Bowl Dr., Pasadena, CA 91103

● 목표: 가정과 공동체 안에서 기도생활 강화→

가정화목과 공동체 일치 → 세계평화 촉진

◆ Help Stop Physician-Assisted Suicide

의사-자살조력안 AB374법안이 주 법률위원회에서 정당
다수 표결로(민주7, 공화3) 통과되었고, 이제 가주 의회 전체
표결에 부쳐지게 되었습니다. 지구 의원과 주지사에게 우리
들의 우려를 알려서 이법이 통과 되지 못하도록 노력합니다.

● AB374법안이 통과될 때 문제점

1. 재산상속 유지, 의료 과오(過誤)를 은폐하거나, 또는
HMO 혜택을 받기위해서 의사조력자살이 독려될 수 있고
실제로 이 법이 통과되면 그의 오용을 막을 방법이 없음.

2. Oregon 주 보건당국은 AB374와 유사한 "Death with
Dignity Act"법이 통과된 후 의사 자살조력이 실제로 법
의 테두리를 벗어난 것인지 판단할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3. 오리건주에서 지난 9년동안 의사 조력자살이 실제로
우울증의 치료책으로 사용된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4. 네델란드에서는 의사 조력자살법을 이용하여 선별된
환자들에게 그들의 동의 없이 약극물을 주사하기에 이르
러 노약자들이 의사에 의해 죽기가 두려워 병원 입원을
포기하게 된다고 합니다.

●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1992, 1995, 1999, 2005, 2006년
에 이법을 부결시킨 바 있습니다. 다시 한번 모든 가톨릭
신자들은 가주 주교회의, 가주 의료협회 외 각 단체와 함께
사랑의 실천으로 이법을 막기위해 지역 주의원 Mr. Ted
Lieu와 주지사 Arnold Schwarzenegger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도록 노력합니다.

● 개인편지와 서명용지는 사무실과 현관앞에 비치됩니다.

사람을 구합니다.

◆ Torrance 보바로카 ◆

● Part Time 일하실 분, 원하는 시간에 일 하실 수 있음

● 연락처: (310)817-1592

이번 주 단체 모임

구역/반장 모임 오후 1시, 강당

다음 주 단체 모임

각단체 모임 오후 1시, 각 방

소공동체 부장 김순희 모니카 (310)328-1817

구역/장	반	반장	장소/날짜
토렌스 동 유현자 안나 320-3697	1	김양금 안나 518-3041	김양금 안나 518-3041
	2	신중철 아브라함 949-679-4321	정기은 비오 618-9775 5/12(토) 오후 7시
	3	정정숙 레아 791-5696	정정숙 레아 791-5696 5/24(목), 오후 7시30분
	4	권본경 올리아 834-2831	형제반 1째 수 오후 7시, 성당 자매반 3째 수 오후 7시, 성당
토렌스 서 김숙희 오틸리아 782-8549	1	엄혜은 도로테아 200-0512	체육대회 참가 5/20(주일), 오전 11시30분, 성당
	2	이명순 크리스티나 374-1572	체육대회 참가 5/20(주일), 오전 11시30분, 성당
	3	김미성 미리암 798-6540	김미성 미리암 798-6540 5/11(금) 오전 10시30분, 성당
	4	이은록 요셉 371-4645	이은록 요셉 371-4645
토렌스 남 김씨니 클라라 612-8840	1	박정자 세실리아 527-7471	엄영숙 마리아 373-5662 5/18(금) 오후 7시30분
	2	임진희 한나 720-7898	임진희 한나 720-7898
	3	장주란 마리아 486-1982	장주란 마리아 486-1982 5/11(금) 오후 7시30분
	4	이정훈 안셀모 908-8823	이정훈 안셀모 908-8823 Club.cyworld.com/103
토렌스 북 권순길 세실리아 365-2183	1	권병연 리디아 (소공동체 차장) 938-3255	체육대회 참가 5/20(주일), 오전 11시30분, 성당
	2	이복임 엘리사벳 516-0818	체육대회 참가 5/20(주일), 오전 11시30분, 성당
	3	현영화 베로니카 530-2136	현영화 베로니카 530-2136
하버 칼슨 박혜경 레나타 (소공동체 차장) 808-5005	1	최경애 프란치스카 326-6587	체육대회 참가 5/20(주일), 오전 11시30분, 성당
	2	김희복 아네스 326-2283	체육대회 후 친교자리 5/20(주일), 오후 5시, 친교장
	3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이영희 카타리나 370-6589
P. V. 이정숙 스테파니 755-1794	1	홍정란 클라라 544-6290	최진수 에우세비오 377-0345 5/11(금) 오후 7시30분
	2	김명재 아가다 541-3687	김명학 대견안드레아 544-4807 5/18(금) 오후 7시30분
	3	진애경 올리아나 541-5370	김용명 프란치스코 544-9532 5/11(금) 오후 7시
	4	석기순 엘리사벳 265-0495	석기순 엘리사벳 265-0495

<교황 베네딕토 16세 성하의 2007년 세계 이민의 날 담화문>

“이민 가정”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세계 이민의 날을 맞이하여, 모든 가정의 모범인 나자렛의 성가정을 바라보며,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민 가정의 상황을 생각해 보도록 권하고 싶습니다. 마태오 복음사가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요셉이 헤로데 임금의 박해를 피해 밤에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해야만 했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마태 2.13-15 참조). 1952년 교황 비오 12세께서는 이 부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포악한 군주의 횡포를 피하여 이집트에서 피난 생활을 하는 예수님과 마리아와 요셉의 나자렛 성가정은 모든 시대 모든 곳의 이민과 순례자, 박해나 빈곤 때문에 그들의 고향, 사랑하는 부모와 친지, 이웃과 가까운 벗들을 떠나 낯선 땅으로 떠나야만 하는 다양한 처지에 놓인 모든 난민의 전형이며 보호자입니다.” 이집트로 피난을 가야만 했던 나자렛의 성가정이 겪은 역경에서, 우리는 모든 이민들, 특히 난민, 망명자, 추방자, 실향민, 박해받는 이들이 살아가고 있는 고통스러운 상황을 엿볼 수 있습니다. 수많은 이민, 난민들과 실향민들의 고통과 곤욕, 결핍과 허약함 등, 모든 이민 가정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대변해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이민으로 일그러지고 약해졌지만, 나자렛 성가정은 모든 가정의 한가운데에 계신 하느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가정은 생명 문화의 터전이자 원천이며, 가치관을 완성시키는 요소입니다. 이민 가정은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 멀리 떨어져 있고 다시 함께 모여 살기 힘든 상황에서 종종 가족의 유대가 끊어지기도 합니다. 새로운 관계를 맺고 새로운 애정이 싹틔웁니다. 어떤 이민들은 격리와 고독의 혹독한 시련을 견디지 못하고 과거와 자신의 의무를 잊어버립니다. 이민 가정이 실제로 그 사회에 속하고, 참여하는 것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그 가정의 조화로운 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2003년 7월 1일에 발효된 ‘모든 이주 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 보호에 관한 국제 협약’의 취지는 남녀 이주 노동자들과 그들의 가정을 보호하는 데에 있습니다. 이는 이제 우리 사회의 구조적 현상이 된 이민의 영역에서도 가정의 가치를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는 이민과 난민과 그 가족들의 권리 보호에 그 목표를 두는 국제법의 기준을 촉구합니다. 또한 여러 기관과 단체를 통하여, 점점 더 절실해지는 이민들의 옹호 활동을 합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교회는 이민들의 상담 센터, 이민들의 쉼터, 이민과 가족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무소들을 열었으며, 이 분야에서 점점 더 들어가는 요구에 응답하는 여러 활동들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민 가정의 통합을 위해 이미 많은 일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해야 할 일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민 1세대는 ‘방어기제’와 연관된 어려움을 심하게 겪으며, 이는 이민 2세대 젊은이들의 더 나은 발전을 방해할 위험을 내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민들의 통합을 돕기 위한 입법적, 사법적, 사회적 중재가 더욱 더 필요한 것입니다. 최근 들어, 더욱 유망한 직업적 전망을 염두에 두고, 더 나은 생활 조건을 찾아서 모국을 떠나는 여성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임신때나 매춘의 희생자가 되고 마는 여성의 수도 적지 않습니다. 가족의 재결합에 있어서, 사회복지사, 특히 여자 수도자들은 그 가치가 충분히 인정될 중재역할을 할 수 있으며, 이에 우리는 마땅히 감사하여야 합니다.

이민 가정들의 융화와 관련하여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난민 가정들에게 관심을 기울여주시라고 요청할 의무감을 느낍니다. 그들의 처지는 과거에 비해 더욱 악화된 것 같아 보입니다. 특별히 가족의 재결합에도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난민 수용소에서 난민들은 물자 보급의 어려움과 비참한 상황에서 비롯되는 정신적 충격과 스트레스에 관련하여 성격상의 문제를 겪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여성들과 어린이들이 생존기제로 성적 착취의 위험에 노출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 세심한 사목적 배려가 필요합니다.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사목적 배려로 존중의 문화를 회복하고, 또한 진정한 사랑의 가치도 재발견할 수 있는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지원도 포함하여야 합니다. 내적으로 파괴된 이들이 자신감을 회복하도록 용기를 북돋아 주어야 합니다. 가족들의 권리와 존엄을 보장하고 그들의 필요에 따라 주거 시설을 보장하도록 모든 것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난민들은 자신들을 받아준 사회에 대해 개방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를 기르고, 모든 이를 위한 ‘공동의 가족’이 될 통합된 공동체 건설에 함께 참여하는 제안을 능동적으로 기꺼이 받아들일 것이 요구됩니다.

이민들 가운데에는 특별히 고려되어야 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집을 떠나 멀리 외국으로 와, 충분한 언어 지식도 없이, 때로는 친구도 없이, 생활하기에 부족한 장학금만으로 살아가는 유학생들입니다. 그들이 결혼이라도 하게 되면 상황은 더욱 악화됩니다. 교회는 지원해줄 가족이 없는 젊은 학생들의 고생을 덜어주고자 교회 기관을 통하여 도와주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이는 기꺼이 그들을 환대하며 서로 잘 알고 지내기 쉬운 가족들과 연결시켜 줌으로써 이 학생들이 자신을 받아준 도시 안에 통합되도록 하는 데 실로 도움이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세계 이민의 날이 교회 공동체와 여론을 통하여 이민 가정들의 긍정적인 잠재력뿐만 아니라 그들의 필요와 문제들에 관한 인식을 높여주는 유익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저는 거대한 이민 현상에 직접 관여하는 이들과 그리고 유동 인구에게 봉사하는 데에 사목적 역량을 발휘하는 이들을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다그칩니다.”(2코린 5.14)라는 바오로 사도의 말씀은 도움을 가장 필요로 하는 우리의 형제자매들에게 우선적으로 우리 자신을 내어주도록 재촉합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저는 여러분 각자를 위하여 하느님의 도움을 간청하며, 애정 어린 맘으로 모든 이에게 사도로서 특별한 축복을 드립니다.

◆바티칸에서 교황 베네딕토 16세